

강의계획서

제목	이야기의 숲을 함께 걷는 ‘책읽어주기’		
교육 목 표	<p>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바라며 ‘독서 교육 어떻게 할까’를 고민한다. 독서 교육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있으나 현재 독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과 함께 바람직한 독서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p> <p>강의를 통해 어른들의 경험이나 입장에 안주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사람,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가치있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책읽기의 장을 마련하고 어른들도 함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특히, 사람의 내면세계를 변화시켜 삶의 의미와 질을 높이는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을 맛보는 시간을 통해 어린이책과 어린이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p>		
단계	시간	강의내용	비고
도입	20분	<p>책읽기의 즐거움</p> <p>‘읽다’라는 말은 글자나 숫자를 발음해서 소리를 내는 행위이거나 정해진 주제를 파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권의 책이 다양한 독자와 만남으로서 전혀 다른 의미로 분석되고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읽는 이 각자의 마음에 새겨지며 독자의 소유가 된다. 하나의 작품을 천명이 읽으면 감상이 천 개가 나오는건 당연하다. 책 속의 구체적인 상황을 마주하며 내 생각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견주는 책읽기”는 현재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와와의 차이를 발견하게 한다.</p>	강의안 및 어린이책
전개	40분	<p>어린이, 어린이책에 대한 이해</p> <p>많은 사람들이 짧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지는 그림책을 유아용 책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그림책 읽기는 시를 읽는 것과 같다. 어린이책에서 만나는 어린이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어린이책 읽기를 통해 사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경험한다.</p>	
제안	40분	<p>어린이책 읽자, 읽어주자!</p> <p>어린이들에게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책은 어느 한 시기에 배우고 학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함께하며 꿈꾸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주는 동안 어른은 깊은 신뢰를 주는 친구이고 정신적 체험을 공유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의 숲을 함께 걸으며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어가자.</p>	
정리	20분	독서교육 질의 응답	